



‘Biliary Atresia: Back to the Future’ 특별호 발간에 부쳐

이희정 (소아 특별호 초청 편집장)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영상의학과



담도폐쇄증은 신생아 간질환 중 가장 심각한 질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소아기에 간이식을 받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담도폐쇄증의 영상의학적 중요성은 수술을 요하지 않는 몇몇 신생아 간 질환들과 임상증상이 유사하면서 영상 소견 또한 비슷한 점이 많아 확인에 이르기까지 초음파, CT, MRI, 간담도 핵의학스캔, 담관조영술, 세침간조직검사 등의 비침습적 및 비침습적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검사 단계에서 최적의 감별진단을 내려주지 못하면 검사 수가 많아지면서 담도폐쇄증이 아닌 경우에도 조직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생아나 영유아 검사는 성인과 다른 점이 많아 검사자의 역량과 해석에 세심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Kasai portoenterostomy와 간이식에 대한 결과와 해석에서 지금까지도 여러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수술 모두 기술적 발전으로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므로 생존한 환자들은 수개월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수십 년간 추적 영상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아영상 특별호에서는 먼저 소아 황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Jaundice in Young Children), 담도폐쇄증에 대한 개요(Overview of Biliary Atresia), 여러 영상진단법과 소견(Diagnostic Imaging of Biliary Atresia), ‘Triangular Cord’ Sign, 그리고 수술 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상소견(Postoperative Imaging Findings of Biliary Atresia) 등에 대한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자료와 연구 경험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저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호가 소아 진료와 치료 또 연구에 헌신하시는 소아과, 소아외과 및 영상의학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